

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

[제8호 / 2014. 7. 1 ~ 7. 15]

2014. 6. 30

농촌진흥청

농촌진흥청은 고추바이러스병, 고추·참깨 역병, 수박 덩굴마름병, 고랭지배추 벼룩잎벌레, 과수의 깍지벌레류, 갈색날개매미충 등 돌발해충에 대한 주의보를 발표하오니 장마철 농작물 관리를 잘하여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주시기 바랍니다.

주요 병해충 정보

주 의 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▣ 과수 깍지벌레류, 노린재류 등 해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고온과 강우량이 적어 다소 많은 피해 예상 ▣ 고랭지배추 벼룩잎벌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고온·건조로 발생지역 확산 전망, 적용약제로 적기 방제 ▣ 고추 바이러스병·탄저병, 고추·참깨 역병, 참외·수박 덩굴마름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매개충 증가로 CMV등 고추 바이러스병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매개충인 진딧물, 총채벌레 등 사전 방제 철저 ◆ 장마 시 곰팡이병 발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배수로 정비를 잘하고 비오기 전·후 예방적인 방제 추진
예 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▣ 벼 흰잎마름병·잎도열병·잎집무늬마름병 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질소시비 과다 등 벼가 약해진 조건에서 잦은 비가 올 경우 잎도열병 등 병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사전 또는 발생초기에 적용약제로 방제 ▣ 과수 갈색날개매미충·갈색여치 등 돌발해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과수 돌발해충의 어린 벌레 발생으로 피해 우려, 적용약제 방제 ▣ 사과 겹무늬씩음병·탄저병·갈색무늬병, 복숭아 세균성구멍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병든 식물체는 즉시 제거하고 발생초기 적용약제로 방제 ▣ 무·배추 뿌리혹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배수로 정비를 잘하여 토양·습도 관리에 유의하고, 병든 식물은 발생 즉시 제거, 발생초기 적용약제로 방제



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잘 지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합시다 !

- 본 병해충 발생정보는 <http://www.rda.go.kr>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-

식량작물

1. 벼멸구, 흰등멸구, 흑명나방 : 예보

- 벼멸구·흰등멸구는 중국 남부지방에서 기류를 타고 날아와 벼대에 알을 낳는 시기임.
 - ☞ 비래해충은 초기방제가 중요하므로 벼대 아래쪽을 잘 살펴보아 발생이 많으면 적용약제로 방제
- 흑명나방은 논을 살펴보아 포장에 피해 잎이 1~2개정도 보일 때가 방제 적기임.
 - ☞ 막대기로 벼 포기를 쳐서 나방이 나는 모습을 보거나 유충 피해인 벼 잎이 세로로 말리는 증상이 보이면 발생 초기에 방제



2. 멸강나방 : 예보

- 멸강나방은 중국에서 날아와 피해를 주는 돌발해충으로 올해는 4월 중순에 처음 비래하였으나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음.
- 멸강나방 발생은 6월 중순에는 세종시와 전남 나주지역에서 유아등 포획량이 예년보다 높았고, 6월 하순에는 인천지역에서



<최근 발생한 유충과 벼 피해>

유아등 포획량이 많았으며, 6월 중하순에 경북, 울산, 충남, 강화 등 일부 지역의 목초지와 그 주변 논에 발생하여 피해를 주고 있음.

☞ 목초지, 옥수수포장 등 기주식물이 있는 곳을 주의 깊게 예찰하여 유충 발견 즉시 적용약제로 방제

3. 흰잎마름병, 잎도열병, 잎집무늬마름병 : 예보

- 흰잎마름병은 물을 통하여 전염되는 세균병으로 상습 발생지역은 농수로에 오염된 물에 의해 주로 전염되므로 주변의 줄풀, 겨풀 등 기주식물 제거 필요



<흰잎마름병>

☞ 침관수 등으로 흰잎마름병 발생이 우려되

는 지역에서는 반드시 깨끗한 물을 이용하여 도열병과 함께 예방위주로 동시방제

- 잎도열병은 거름기가 많은 논에서 비가 자주 내리면 발생되는데 토양이 건조할 경우 벼가 병에 쉽게 걸릴 수 있는 상태로 됨. 최근 건조한 날씨 후에 장마로 연속 강우가 지속되면 호평벼, 일품벼 등 도열병에 약한 품종과 잎색이 짙고 잎이 늘어진 논 등에서 발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.

☞ 발생초기에 적용약제로 방제하고 침관수시는 보완방제

* 도열병에 약한 품종 : 화성벼·청아벼 등(중생종), 추청벼·일품벼·일미벼·신동진벼·호평벼·청담벼·진백벼 등(중만생종)

- 잎집무늬마름병은 웃자라고 분얼이 많아 공기 유통이 원활하지 목산 논에서부터 시작되어 발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.

☞ 7월상·중순 과번무된 조생종 포장은 도열병과 동시방제 추진

노지채소

1. 고추 바이러스병 : 주의보

- 진딧물 및 총채벌레의 밀도가 증가하면서 많은 포장으로 확산되고 있어 이들 매개충이 전염시키는 바이러스병 발생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음. 특히, 충북



<CMV 증상>

괴산, 경북 안동 등의 주산지에서 발생이 심한 포장이 발견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

- ☞ 오이모자이크바이러스(CMV)를 전염시키는 진딧물과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(TSWV)의 매개충인 총채벌레에 대한 기작이 서로 다른 전용 농약을 교대로 살포하여 이들 해충을 철저히 방제
- ☞ 바이러스병이 이미 발병하여 진전된 포장에서는 고추 식물체의 주간부위에서 자란 세력이 강한 측지 관리로 고추 수량 확보

2. 고추·참깨 역병, 고추 탄저병, 멜론·수박·오이 덩굴마름병 : 주의보

- 역병은 토양의 병원균이 물을 통하여 전염되는 병으로 일단 발병하면 급속하게 번지고 방제효과가 낮은 병이기 때문에 비가 자주 내리거나 배수불량 두둑이 높지 않은 포장에서 급격히 번질 우려가 있음



- ☞ 충북 충주에서는 6월 중순에 이미 병 발생이 시작되었고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 예측결과 6월 중순과 하순에 전국적으로 감염위험이 높았기 때문에 잦은 강우 시 급격한 확산 우려가 있음

- ☞ 땅 닿는 부분까지 약액이 충분히 묻도록 적용약제로 예방위주 방제

○ 탄저병은 장마가 길고 비가 잦은 해에 발생이 많은 병으로 최근 6월 11일에 전국적으로 감염위험경보가 나타나 탄저병 포자가 비산되었고, 6월 중순에 충북 영동, 충남 태안 지역에서 병 발생이 시작되었음. 또한 6월 하순에 감염위험경보가 전국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후 방제를 소홀히 할 경우 피해 우려

☞ 병든 과실을 그냥 두거나 이랑사이에 버리면 방제효과는 50% 이상 감소하므로 병든 과실은 발견 즉시 묻거나 소각하는 것이 효과적이며, 비오기 전후로 침투이행성 전용약제 살포



<고추탄저병예측지도 6. 24>



<고추탄저병예측지도 6. 25>

○ 덩굴마름병은 비가 많이 올 경우 발생이 많은 병으로 생육후기에 초세가 약해질 무렵부터 잎이나 줄기가 말라 죽는 현상이 나타남.

☞ 약제 방제만으로는 효과적인 방제가 어려우므로 과습을 방지하고 생육을 강건하게 유지시킴.

3. 고랭지배추 배추벼룩잎벌레 : 주의보

○ 최근 고온으로 인해 고랭지배추 지대에 배추벼룩잎벌레가 급격히 증가하여 방제가 소홀한 포장에서 피해를 주고 있어 초기에 철저히 방제

☞ 정식 전에 적용약제를 토양처리한 후 정식하고, 발생이 심할 경우에는 작용 기작이 다른 2가지 이상의 적용약제를 혼용하여 방제



<벼룩잎벌레>

4. 무배추 뿌리혹병 : 예보

- 뿌리혹병은 뿌리에 크고 작은 혹이 생기면서 지상부가 말라죽게 되는 병으로 준 고랭지(표고 400m)의 일찍 심은 배추밭에서 발생되어, 점차 높은 지대로 확산되어 나타남.
- ☞ 병원균은 물이나 흙을 통하여 이동하므로 물 빠짐이 좋도록 배수로 정비를 잘 해주고 병 발생 후에는 방제가 어려우므로 병든 포기는 발견즉시 제거

과 수

1. 과수 각지벌레류, 노린재류 : 주의보

- 가루각지벌레가 고온으로 2세대 부화최성기가 약 1주일 앞당겨지고, 적은 강수량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여 피해가 예상됨
- ☞ 각지벌레류의 방제를 위해서는 약제가 충분히 흡착될 수 있도록 10a당 250~300리터 수준으로 살포하되 평소 각지벌레가 많이 관찰된 나무는 특별히 충분하게 살포하고, 봉지를 씌운 후에도 2차 살포를 하여 봉지내부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
- ☞ 발생이 많은 곳은 조피제거 등 근본적인 대책 필요



<가루각지벌레 군서생활과 이동중 산란>

○ 갈색날개노린재, 썩덩나무노린재 등 사과 흡즙 주요 노린재류는
으로 성충으로 월동하다가 4~5월부터 발생을 시작해 7~8월에
사과 과실에 집중적으로 피해를 줌. 올해 1개월 이상 빨리 발생
하였고 최근 발생량이 전년보다 6배 이상 높아 주의를 요함.

☞ 노린재류의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서는 7월 상·중순과 7월 하순
~8월 상순, 8월 중하순에 심식나방류와 동시에 방제 가능한
클로르피리포스 수화제, 비펜트린 수화제 등의 살충제를 2~3회
골고루 살포



2. 과수의 갈색여치·갈색날개매미충·미국선녀벌레 : 예보

○ 갈색여치는 올해 충북 옥천, 영동, 청원, 전북 무주, 경북 의성 등
일부지역에서 작년보다 많이 발생하여 사과, 복숭아, 포도, 자두,
배 등의 잎, 줄기 및 과실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줌.

☞ 주변 야산에 밀도가 높은 곳과 과원 주변에 비닐 막과 끈끈이
트랩을 설치하고 적용약제 살포



<갈색여치 피해>

- 갈색날개매미충 발생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, 발생 밀도는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방제를 소홀히 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됨.
- ☞ 정밀예찰을 하여 어린 약충은 적용약제로 방제하고, 친환경 제재로는 고삼추출물, 데리스 추출물, 님추출물, 고삼+계피추출물, 님+마늘추출물 (“12 전남)이 효과적임.



【1령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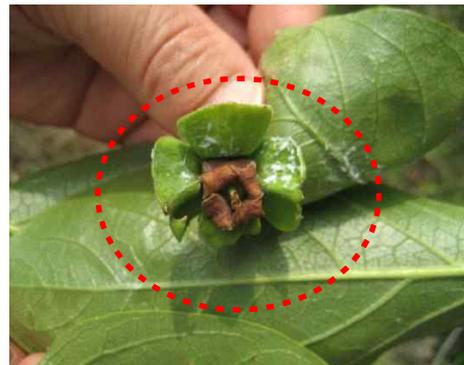
【2령】

【3령】

【4령】

【5령】

- 미국선녀벌레는 충북, 전북, 경남지역의 사과, 단감 등에 발생하였으며, 먹이식물의 즙액을 빨아먹고 왁스물질과 감로를 배출하여 상품성 저해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바이러스를 매개함.
- ☞ 정밀예찰 및 약충시기에 꽃매미 등과 적용약제로 동시방제



<미국선녀벌레(약충, 성충)>

<단감열매 미국선녀벌레 발생>

3. 복숭아순나방, 잎말이나방류, 응애류, 진딧물류 : 예보

- 복숭아순나방은 보통 과실의 꽃받침 부분부터 먹기 시작하고 바깥쪽에 배설물을 배출함.
- ☞ 전년에 과실 피해가 많았거나, 성페로몬 트랩에 유인이 많이 된 과원은 적용농약으로 복숭아심식나방과 동시에 방제하고, 피해를 받은 신초나 어린과실을 발견하면 그 즉시 제거하여 땅에 묻음.

○ 차애모무늬잎말이나방, 차잎말이나방 등 잎말이나방류는 월동한 유충이 새로 나오는 잎으로 이동해서 잎을 세로로 말고 들어가 갇아먹어 피해를 주며 과실의 표면을 활듯이 가해하여 상품성을 떨어뜨림.

☞ 성페로몬트랩을 설치하여 1회 성충 발생최성기 10일 후 감관총 채벌레와 동시방제하되 감에 잎말이나방류에 등록약제가 없으므로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감꼭지나방 방제용 약제로 방제

○ 배·사과에서 사과응애와 점박이응애는 온도가 계속 유지될 경우 초기부터 피해가 우려되므로 잎을 잘 관찰하여 줌.

☞ 수관내부의 잎을 잘 관찰하여 응애 발견 시 적기 방제

4. 사과 점무늬낙엽병·갈색무늬병·탄저병·겹무늬씩음병, 복숭아 세균구멍병 : 예보

○ 사과 점무늬낙엽병, 갈색무늬병은 일부지역에서 발생했으나 확산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지만 포장 상태에 따라 비 오기 전·후에 적용농약으로 동시방제

☞ 갈색무늬병과 유사증상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적용약제 살포 여부를 결정



<갈색무늬병>



<갈색무늬병 유사증상>

○ 겹무늬씩음병은 병원균이 잠복하고 있다가 생육 후기에 병징을 나타내는데, 장마기간 전·후가 최대 감염 시기임.

☞ 포장 상태에 따라 비 오기 전 후에 적용농약으로 동시방제

- **탄저병**은 ‘후지’ 품종과 탄저병에 감수성인 조·중생종 품종(쓰가루, 홍로, 추광 등)을 혼식한 경우가 단일 품종만 심은 곳보다 피해가 많음
 - ☞ 사과원 인근에 기주식물인 호두나무, 아카시아 나무를 제거하고 발생초기 전문약제를 살포하여 포자의 비산 및 발아를 최대한 억제
- **검은별무늬병**은 올해 강우일수가 적고 고온으로 인해 발생이 적은 편임.
 - ☞ 6월 중순이후 과실부위 감수성이 높으므로 봉지씌우기를 못한 농가는 씌우기 전에 적용약제로 매미충류 해충약제와 동시방제
- **복숭아 세균성구멍병**은 잎·가지·열매에 수침상의 반점이 생긴 후 확대되어 피해를 주며 바람을 동반한 비에 의해 발생이 많아지는 병으로 장마기에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.
 - ☞ 병든 가지는 제거해주며 발생이 많은 곳은 방풍망·방풍림을 설치하고 봉지씌우기 전에 적용약제로 방제

5. 포도 새눈무늬병·갈색무늬병·노균병, 단감 둥근무늬낙엽병 등 : 예보

- **포도 새눈무늬병**은 잎의 잎맥이 흑갈색으로 변하고, 진전되면 흑색 반점으로 확대되어 구멍이 뚫리며 열매와 가지에는 초기에 흑갈색의 반점이 나타남.
 - ☞ 비가 많이 올 때 발생이 많으므로, 병든 부위는 즉시 제거하고 봉지 씌우기 전에 적용농약으로 방제
- **포도 갈색무늬병·노균병**은 비가 자주 내리고 습도가 높을 때 발생이 많음.
 - ☞ 잎과 과실을 자세히 살펴보아 발생초기에 적용약제로 잎 뒷면 까지 방제하되 가급적 비오기 전후 중점방제
- **단감 둥근무늬낙엽병**은 병원균이 5~7월 자낭포자 형태로 공기 중에 흩날리면서 감나무 잎에 침입하여 잠복하며, 8월말 이후 발병하여 잎에 둥근무늬의 반점이 생기고, 심하면 일찍 낙엽이 지고 과실은 품질이 떨어지면서 심할 경우 낙과함.
 - ☞ 발병하면 방제가 어려우므로 포자가 공기 중에 비산되는 5월 하순부터 7월 상순 사이에 예방위주로 탄저병과 흰가루병이 동시에 방제되는 적정약제를 선택하여 방제

기상전망 (7월 7일 ~ 8월 3일)

(자료 : 기상청)

요 약

흐린 날이 많겠으며, 많은 비가 올 때가 있겠음

□ 날씨 전망

주간별	날씨 전망
1주 (07.07~07.13)	저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겠으며, 많은 비가 올 때가 있겠음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으며,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음
2주 (07.14~07.20)	저기압의 영향으로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올 때가 있겠음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며,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음
3주 (07.21~07.27)	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 때가 많겠으나,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올 때가 있겠음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
4주 (07.28~08.03)	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 때가 많겠으며, 대기불안정에 의해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올 때가 있겠음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겠으며,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

□ 주간별 예보

주간별	평균 기온	강수량
1주 (07.07~07.13)	평년(23.7℃)보다 낮겠음	평년(78.2mm)보다 많겠음
2주 (07.14~07.20)	평년(24.5℃)과 비슷하겠음	평년(73.9mm)과 비슷하거나 많겠음
3주 (07.21~07.27)	평년(25.4℃)과 비슷하겠음	평년(58.4mm)과 비슷하겠음
4주 (07.28~08.03)	평년(26.2℃)과 비슷하거나 낮겠음	평년(48.2mm)과 비슷하겠음